광주 막혔던 도시정비사업 다시 '기지개'

운암3단지, 경양초 이전 중재안에 사업 추진 '속도'

누문동 도시정비, 시공사 선정…재건축 9곳은 답보

부동산 경기 침체와 정부의 '중첩 규제'에다, 사업구역 주민들 간 첨예한 갈등이 맞물리면서 지지부진하던 광주지역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도시정비사업이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지 주택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다만, 노후 주거지 개발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슬럼화될 우려가 높은 지역도 적지 않아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에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운암 3단지 재건축, 경양초교 이전안 제시=26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27일 오후 3시 경양초교에서 운암 주공3단지 재건축 사업과 관련, 설명회를 연다.

교육청은 이날 설명회에서 경양초교를 예술고 부지로 이전키로 하고 이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230억원)의 절반 수준인 105억원과 학생들 통학버스 운영비(5억5000만원)를 조합측이 부담키로 했다는 내용을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청은 또 ▲예술고 부지 내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경양초 학생들(350여명)을 예술고에 수용하는 방안 ▲인근 동림·운암·대자·동운초 중 한 곳의 유휴교실을 활용해 경양초 학생 전원을 옮겨 생활하게 하는 방안 등 학교 재배치 계획도 제시할 계획이다. 경양초 이전 문제가 조합과 해당 지역 학부모간 첨예하게 대립해온 이슈라는 점에서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속도를 낼 지 주목된다.

광주시 북구 운암 3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운암동 252번지 일대 노후화된 아파트 63개동을 허물고 3272세대 규모의 아파트단지(17만858㎡)를 짓는 사업이다.

재건축조합측은 지난 2015년 조합을 설립한 뒤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려다가 사업부지 내 경양초교 재배치 문제를 놓고 학부모·광주시교육청 간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추진이 더디게 진행됐었다.

교육청과 학부모측은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정상적 학교 운영이 어려운 만큼 사업기간 동안 임시 휴교를 하고 학교 이전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또 학교 이전이 마무리될 때까지 통학버스 비용 등의 조치를 조합측에 요구했지만 조합측이 난색을 표하면서 양측은 평행선을 달려왔다.

조합측은 설명회 이후 대의원의회·조합원 총회를 거쳐 최종 확정한 뒤 7~8월 북구청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다는 계획이어서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누문동 도시환경정비사업도 본격화될 듯=광주시 북구 누문동 도시환경정비사업도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누문동 정비사업은 낙후된 구도심 개발을 위해 누문동 일대 10만6481m² 부지에 3000여 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 그동안 시공사 선정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전체 일정이 지체됐었다.

하지만 최근 조합원 총회를 통해 시공사를 결정하면서 사업시행인가 등 후속 절차가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6곳의 재건축 사업지 중 9곳은 사실상 중단=지역 내 주택 재건축사업이 모두 활기를 띠는 것은 아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16곳. 하지만 정비구역으로 지정해놓고도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한 지역이 9곳에 이른다.

재건축사업 뿐 아니다. 주택재개발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도 비슷하다. 광주지역 34개 주택 재개발사업지 중 지산 1구역과 학동 2구역은 10년 넘도록 조합이 설립되지 못했고 조합 설립 이후 후속 조치가 더디게 진행되는 것도 많다. 이들 지역 상당수는 '노후 주거 환경 개선'을 취지로 추진했다는 점에서 무산시 주거 환경이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사업 추진이 답보 상태에 놓여있는 지역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우범화 방지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주택 재건축 사업 추진 현황

구별	구역명	안전진단	구역지정	추진위구성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착공	준공
	16개소	8개소	6개소	7개소	6개소	4개소	4개소	3개소	1개소
서구(4)	화정동삼익			미추진					
	화정동염주주공	2011	2013	2013	2014	2017	2018		
	쌍촌동쌍촌	2003	2009	2003	2003	2015	2016	2016	
	화정주공	2003	2008	2007	2008	2011	2011	2012	2016
남구(10)	월산신우	2017		미추진					
	방림삼일	2015		2008					
	주월장미	2003	2008	2004	2009				
	봉선라인모아, 봉선라인하이츠 1·2차, 봉선명지맨션, 봉선모아2차, 주월스카이, 진월신흥타운은 추진위 구성 되지 않음								
북구(1)	운암3단지	2012	2014	2015	2015				
광산(1)	송정주공	2006	2007	2006	2007	2007	2016	2017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350.92 (-6.96)	↑ 금리(국고채 3년)	2.15 (+0.01)
↓ 코스닥	831.40 (-4.60)	↓ 환율(USD)	1114.80 (-2.40)

롯데百광주점 보훈가족 생필품 전달 롯데백화점 광주점 샤롯데봉사단 10여명은 26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광주지방보훈청을 방문해 지역 보훈가족 50세대에 전달할 생필품 등을 후원했다. 〈롯데쇼핑 제공〉

호남권 레미콘 조합 담합 적발

공정위, 광주·전남·제주 9곳 과징금 102억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를 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광주·전남 레미콘 조합 등 9개 레미콘조합에 과징금 101억9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광주·전남에서는 광주전남·남부·동부조합이 적발됐고 전북지역은 전북·서남·북서조합이, 제주지역은 제주시·제주광역·서귀포시조합 등이 적발됐다.

이들은 각 지역 지방조달청이 2015년 발주한 관수레미콘 입찰에서 낙찰자와 들러리, 투찰 수량 등을 정하고 이를 실행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들러리 역할을 한 조합이 높은 가격으로 투찰을 하면서 최종 낙찰률(조달청이 제시한 입찰가 대비 투찰가)은 99.9%를 웃돌 정도로 높게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조달청의 레미콘 입찰 낙찰률은 90% 초반대에서 결정되며, 일부 지역은 88%를 기록한 경우도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단독 응찰에 따른 유찰을 막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법 위반 인식 없이 들러리로 참가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제주항공 무안~제주 임시운항

주 4회 내달 22일부터 한달간

제주 항공이 무안공항~제주 간 항공편을 운항한다.

여름 휴가기간, 제주행 항공편 잡기가 힘들었던 만큼 여행객들 사이에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제주항공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음 달 22일부터 8월 21일까지 한 달간 무안~제주 간 부정기 노선을 운항한다고 26일 밝혔다.

주 4회 무안에서 오전 6시에 출발하고 제주에서 오후 10시 20분에 출발한다.

제주항공은 이번 부정기편 운항이 국내선 노선 다양화를 위한 전략적 검토로 성수기 운항을 통해 시장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제주항공은 다음달 27일부터는 대만 타이베이 노선(주 5회)을 신규 취항한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항공기 운용 효율성과 이용객 편의성 등을 검토해 제주~무안 노선의 정기편 전환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광주은행, 직장인 위한 '한낮의 힐링 음악회'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26일 낮 점심시간을 이용해 광주은행 본점 1층 로비에서 '한낮의 힐링음악회'를 가졌다.

'한낮의 힐링음악회'는 업무의 연속으로 바쁜 일상을 보내는 직원들에게 점심시간을 활용해 여유를 갖고 문화공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광주문화재단 주관으로 정율성 선생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찾아가는 정율성 음악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랜드오페라단을 초청해 '그리운 금강산' 외 10곡의 가곡 향연을 펼쳤다.

직원들은 점심식사 후 한낮의 도심 속에서 펼쳐지는 음악회에 참석해 은행 업무를 위해 본점을 찾은 고객들과 함께 음악을 감상하며 뜨거운 호응을 보냈다.

송종욱 은행장은 "현장에서 직무스트레스를 안고 있는 직원들에게 오늘 음악회가 일과 삶의 행복한 균형이 실현되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며 "광주은행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직원들의 열정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지역 기업에 진정한 워라밸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 기자 lion@

농협전남본부 고흥 감 재배농 생산자 교육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태선)는 26일 고흥군 풍양면 만감류 재배농가 30여명을 대상으로 생산자 조직화교육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농산물유통 환경변화와 함께 산지 대응전략과 연계한 농가조직화 필요성, 정부의 산지조직 육성정책 설명, 재배기술교육, 전남 과실공동브랜드 '상큼애' 사업설명 등 순으로 이뤄졌다.

풍양농협은 30여농가가 7ha의 시설하우스에서 만감류를 재배하고 있으며 약 50여t을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관세철폐로 오렌지, 망고 등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면서 소비둔화와 가격하락으로 농가소득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중호 풍양농협 조합장은 "지구온난화로 고흥지역에서 만감류 재배농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농가들을 조직·규모화해 농산물을 제값 받고 팔아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100년 신문 향한 정통지 창사66주년 광주일보